

공동체 소식



## 위령 성월

“살아 있는 모든 이에게 호의를 베풀고,  
죽은 이에 대한 호의를 거두지 마라” (집회 7,33)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자선활동과 더불어 기도와 속죄로  
묵은 인간' 을 벗어 버리고 '새로운 인간' 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1월 기도지향

- 안병환(발렌티노), 안현숙(크리스티나) 가정
- 김병철(베네딕도), 김경희(스콜라스티카) 가정

위령성월

교회는 해마다 11월 2일에 기념하는 '위령의 날'과 연관하여 11월 한 달을 '위령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위령 성월에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은 물론 죽은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림 특강

- 일시 : 12/9(일) 중심미사
- 주제 : “유배시대, 절망과 희망의 노래”
- 강사 : 주영길 토마스 신부

판공성사

- 12/9 (일) : 1 ~ 2구역
- 12/16(일) : 3 ~ 5구역
- ☞ 중심미사 한 시간 전, 그리고 미사 후 성사 보실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 통신 교육 안내

- 대상 : 입교를 원하는 예비자
- 주관 : 북미주 가톨릭교리 통신교육
- ☞ 자세한 내용은 11월 매일미사 책, 12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공동체 소식

- 2013년 매일미사 책 신청 받습니다. 1년 구독료는 60불입니다.
- 성탄 대축일 맞이 제대 꽃 봉헌 받습니다. 전례분과에 문의 바랍니다.
- 오늘 중심미사 후, 대림 준비 행사가 있습니다.
- 대림시기 동안, 주일 미사 30분 전 묵주기도 봉헌이 있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78	212	176, 174	76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b>이번주일</b>	고영방(스테파노)	정수한(베 드 로)	
	고평원(프란치스코)	정예찬(미 카 엘)	
<b>다음주일</b>	이우영(가브리엘)	문석찬(요 셉)	
	이원준(요 한)	문호진(안토니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b>이번주일</b>	김주연(세실리아)	조장군(바 오 로)	
	박혜정(카타리나)	우정숙(아나타시아)	
<b>다음주일</b>	김명은(안 젤 라)	정준구(파비아노)	
	김주연(세실리아)	정병훈(보니파시오)	

애찬 봉사자

<b>이번주일</b>	최선윤(마리아) 정연숙(막달레나), 황의정(율리안나)	
<b>다음주일</b>	김시연(엘리사벳) 안혜진(임마꼴라따), 한정숙(마리아)	

헌금 봉사자

<b>이번주일</b>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b>다음주일</b>	신혜경(마 리 아)	박희영(카타리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 <11월 18일>
- 미사참례 : 104명
  - 주일헌금 : \$451
  - 교 무 금 : \$150



연중 제 34 주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

“믿음이 깊으면 기도를 하고, 기도가 깊으면 전례에 적극 참여한다”

2012년 11월 25일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교회는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의 임금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사랑의 사도가 될 것을 다짐하며 마음 모아 미사를 봉헌합니다.

### 성화해설

#### 혜화동 성당

서울대학교,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소재.

1909년 혜화동에 정착한 성 베네딕도회 수도원이 1927년 덕원으로 이전하자 뫼텔 주교는 수도원을 매입하여 서울대목구의 세 번째 본당인 백동(현 혜화동) 본당을 설립했다. 1929년 옛 수도원 성당을 소신학교에 양보하고 수도원 목공소를 성당으로 개조해 사용했다. 가톨릭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1960년 성당과 사제관을 완공한 혜화동 성당은 근대적 건축미와 예술성을 높이 평가받아 2006년 서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근대문화유산 제230호로 지정되었다.

주호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학교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다니 7,13-14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다.>

**화 답 송 :**



주 님 께 서 는 임 금 님 위 엄 을 차 리 셨 도 다 -

○ 주님께서는 임금님 위엄을 차리시니

주님께서 차리시어 권능을 띠피시니 우리가 굳건하여 흔들림이 없나이다. ◎

○ 당신의 어좌는 예로부터 견고하니

영원부터 당신께서는 계시나이다. ◎

○ 당신의 증거는 너무나도 미더운 것

당신의 집안에는 거룩함이 제것이니 길이길이 주님 그러하리이다. ◎

**제 2 독서 :** 묵시 1,5ㄱㄴ-8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께서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 음 :** 요한 18,33ㄴ-37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 쉐 마

## “십자가에 매달린 임금”



오늘 복음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한 내용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오?’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유대인들의 고발한 죄명이라고 답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한 후,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목을 써 붙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정치범으로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빌라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로 당신의 부하들이 당신을 위해 싸워주지 않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왕국에서는 부하들이 싸우고, 빼앗고, 점령하여 왕을 옹립하고 보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 그렇게 싸우고 빼앗고 점령하여 권력자를 추대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왕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과 영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 아직도 왕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왕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단어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왕은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그리스도 왕 축일은 사라져가는 그런 왕으로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 왕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땅 끝에서 땅 끝까지”(시편 2,8) 다스리게 해주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교회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고 쏟아져’ 돌아가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빌라도에게 당신이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신 하느님의 진리는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는 데에 있습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짓밟는 일과, 미움으로 사람을 버리고 죽이는 일은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자리 잡은

동물적 본능과 미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신 진리는 용서하고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용서하고 살리는 것이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는 인간의 참다운 자유라는 말씀입니다.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충실하다고 그리스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주변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아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괜찮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진리와는 아무 관계없는, 이세상의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남이 보아서 괜찮고, 내가 보아서 훌륭하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신 진리가 삶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살리는 하느님이 우리의 실천 안에 살아계셔서 인간 본연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 벌을 주고,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제물을 바친 그만큼 용서하고 구원하신다고 유대교는 가르쳤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느님이 그들에게 큰 권한을 주셨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율법의 이름으로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병든 이, 가난한 이, 실패한 이들은 모두 하느님이 버린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비판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용서하고 살리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그 진리를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하들을 희생시키며, 자기 스스로는 명예롭게 군림하는 이 세상의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 스스로를 내어 주고 쏟아져, 인류 역사 안에 ‘내어 주고 쏟아져’ 삶의 진리를 발생시켰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일을 배우는 사람에게 왕이십니다. 그 나라에는 우리의 인과응보(因果應報)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실천하는 헌신과 봉사가 기본 질서입니다.



● 부산교구 서 공석 신부

# 마 중 물

## 철 딱라 바뀌는 믿음

한번은 어떤 사람이 라즈니쉬에게 와서 말했다. “저는 하느님을 열렬히 믿고 있습니다.”

라즈니쉬가 놀라서 물었다. “전에도 그대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하느님에 대하여 불평을 계속 늘어놓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이렇게 변했는가?”

“전에는 저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이나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 드렸지만, 하느님은 제 기도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속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에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입니다. 바로 어제 예쁜 자식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맨 먼저 당신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10년 동안의 제 고통을 잘 아시니까요.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존재 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결정 내리는 것을 미루곤 하지만, 오늘이 아니면 내일, 언젠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말을 듣고 라즈니쉬가 충고하였다. “그대는 아직도 너무 성급하오. 그 아이는 곧 죽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하느님에 대한 그대의 애정과 신뢰와 믿음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느님은 그 아이와 함께 탄생했다가 그 아이와 함께 가버릴 것이며, 그대는 전보다 더 심하게 하느님을 증오할 것이오. 전에는 하느님이 단순히 그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지만, 이제는 그대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를 앗아간 것이니까 말이오.”

“제발 그런 말씀을 말아 주십시오!”

“그대를 일깨우기 위해서 말해야 하겠소. 하느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철 딱라 바뀌고 있소. 철 딱라 찢는 꽃과 같다는 말이오. 몇 주 동안은 바람에 나부끼다가 몇 주 후에는 자취를 감추어 버리오. 그대의 사랑은 그대 존재의 중심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오. 그것은 체험이 아니라 뇌물에 불과하오.”



# ‘신앙의 해’ 교육자료

### 1.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信仰 Fides)은 믿고 받드는 일 곧 하느님을 굳게 믿고 의탁하는 믿음(Fides)을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한 분이신 하느님, 사랑이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1요한 4,8 참조). 모든 신자는 성인 세례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이 주례자의 질문에 답을 하였습니다.

- + (아무),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 + 신앙이 그대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2티모 1,12). 바로로 성인의 이 말씀은 신앙이란 “무엇보다도 인간이 인격적으로 하느님께 귀의하는 것이며, 또한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 전체에 대하여 자유로이 동의하는 것”임을 알게 해 줍니다. 신앙인은 매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시므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